

2012 8. 12 연중 제 19 주일

제 1 독서 : 열왕기 19, 4-8 <엘리야는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제 2 독서 : 에페소 4,30 - 5,2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 음 : 요한 6, 41-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와 복음에서는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1 독서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BC 9 세기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느님께 예를 드렸고 왕후 이세벨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마침내 왕궁에서 종사하던 거짓 예언자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을 내렸고, 이를 피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어려운 피신 중에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이 하느님께 탄원하는 엘리야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굶주린 엘리야에게 먹을물과 음식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제 1 독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상황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반복하시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하노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 하시며,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편의대로 해석하여 그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기해석주의 탓으로 목사님에 따라 자꾸만 교회내 분파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빵을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 6 장에서는 반복하여 이 생명의 빵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밤 최후의 만찬에서는 바로 **빵이 나의 살** 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천주교 내에도 성체 신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성인들의 전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삶속에는 성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성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빵조각이 아닙니다. 사제생활을 하는 저 역시 게으름의 유혹이 저를 덤치고, 힘들고 피곤함이 저를 엄습할때에 하느님께 원망을 드리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떨치고 성체 앞에 앉아 기도 드릴때에 그 어려움들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다시 힘이 솟는것을 체험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본당에는 한달에 한번씩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그 성체현시와 강복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누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함께 나누어드리고자함 인 것입니다. 모든 성당이 다 성체현시와 강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인 신자들이 많은 LA 한인 공동체신자들 가운데는 성체강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만큼 지금의 우리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게으름속에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라틴어 미사(그레고리안 미사)에서는 미사중에 사제가 하는 라틴어 경문을 신자들이 거의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미사중에 53 회나있는 성체축성문을 사제가 실수로 빠트리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혹시 사제가 미사중에 실수를 하면 바로 잡아줄수있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미사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성체는 죽을 사람도 살려 냅니다. 진심으로 믿고 기도 하는 자세로 성체를 영할때에 우리의 내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흔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안경없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한때 노안이 와서 성경을 읽을수 없게 되자 하느님께 제발 잘 볼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 하시며 성체를 영하신 손으로 눈을 쓰다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이 갑자기 맑아지고, 희미하게 보였던 책속의 글씨가 선명하게 읽혀지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성경을 돋보기 없이 잘 읽고 계십니다. 교회내 역사에서도, 독일의 한 성인은 성체 하나로만 40 년을 사신분이 있으며, 이탈리아에도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60 년동안 오직 성체만 모시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믿겨지지않는 성체의 기적들이 우리 교회 역사안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쳤을때 오늘의 복음 말씀 “ 내가 살아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때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있는 힘과 용기와 평화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성체성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공심제 (제 2 차 바티칸 공의 회 이전에는 세시간, 열심이신 분들은 24 시간을 지켰지만 ,지금도 성체를 영하기 적어도 한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됩니다)는 잘 지키고 있는지?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여러분을 용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사도께서는 우리가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간직하고 성체를 영할때 성체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으로 부터 단죄 받게 됨을 경고 하여 주십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 받을 때에야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을 짝사랑 하고 있을때에 우리는 그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 하지 않듯이, 하느님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사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혹시 짝사랑하고 계시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느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룰수 있도록 그래서 성체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1 독서

<엘리야는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4-8

그 무렵 4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싸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5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7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 독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30—5,2

형제 여러분, 30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31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5,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41-51

그때에 41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42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46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50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